

“친구야 어디 있니”...광주 영천중 동기생들 애타는 목소리

안타까운 소식에 동기생들 발동동
졸업생 두명 이태원 놀러갔다
한명 실종 한명 부상
동기생들 상경 실종 친구 찾기
실종자센터·병원 등 헤매

‘이태원 헬러윈 참가 현장’에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 동기생의 엇갈린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영천중학교 졸업생 두명이 29일 이태원으로 놀러갔다가 한명은 실종되고 한명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30일 오전 10시 27분 용산행 KTX에는 영천중 졸업생인 박강현(26)씨가 급히 몸을 실었다.

10년 지기인 중학교 여자친구들이 이태원에 함께 갔다가 한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한명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실종된 한모씨와 부상당한 김모씨와 영천중에 다닐 때부터 친했다고 한다. 10년 동안 쪽 연락을 지속해온 이들과의 마지막 연락은 지난 28일이었다

29일 이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태원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때만 해도 박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하지만 30일 아침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접한 박씨는 친구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한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간 김씨는 참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탓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한씨가 인파에 떠밀려 김씨의 손을 놓친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씨를 비롯한 영천중 동기생들은 당장 서울로 향했다. 이들은 일단 부상을 입은 친구 김씨의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김씨로부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밤 참사가 발생한 내리막길 지점보다 살짝 앞쪽에서 한씨의 손을 놓쳤다고 한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손을 틀이 없었다고 한다.

박씨는 “(김씨는) 파도같은 인파가 밀리기 직전 문이 열린 가게로 가까스로 들어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손을 놓친 한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박씨를 비롯한 영천중 동기생들은 한씨를 찾기 위해 타지인 서울을 헤매고 있다. 실종자센터를 찾았지만 실종자 명단과 부상자 명단, 사망자 명단 어디에서도 한씨를 찾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 사고 현장과 희생자들이 안치된 서울지역 병원을 일일이 찾아 다니고 있다. 30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한씨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서울=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설치된 '이태원 헬러윈 참가 실종신고센터'에 아들을 찾으러 온 중년여성이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쓰러져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서울=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서울 일하러 간 딸 차가운 시신으로 “서울행 허락한 내 잘못” 가슴친 父情

딸 잃은 광주 아버지의 절규

세월호 이후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이태원 헬러윈 참사’에서도 생때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계속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 모(55·광주시 서구)씨는 정신을 잃고 오열하고 있었다.

두 달전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취업한 딸(23)이 29일 이태원 헬러윈 참가 사고로 숨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말을 하던 딸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특한 마음에 응원을 했다고 한다.

어린 딸을 서울로 보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스무살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딸이 어엿한 사회인이 된다는 생각이 어렵게 승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보니 직장생활을 하라고 서울로 보낸 내 선택이 딸을 죽음으로 몰 것 같다”며 가슴을 쳤다.

김씨는 29일 딸이 광주 친구들과 만나 이태원에 놀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0일 새벽 이태원의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란 김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계속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새벽 6시에 딸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김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바로 서울로 향했다.

김씨는 ‘제발 (딸이) 중환자실이라도 누워있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지만, 기차 안에서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말았다.

부모 말을 한번도 거역하지 않고 속을 썩인 적인 없는 딸이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의정부 병원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한 김씨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헬러윈이면 평소에도 사람이 몰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아무도 통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소중한 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니...”라며 오열했다.

김씨 가족은 딸을 광주시 광산구 장례식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서울=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외신 “경찰 인력부족·안전대책 미비”

전문가들 “인파 예상 됐지만 예방·해산 조치 크게 부족”

이태원 헬러윈 참사와 관련 외신들은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뒤 맞이한 첫 헬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데,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헬러윈 축제가 다시 열리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가 한꺼번에 몰렸다

가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초래됐다는 영국 잉글랜드 서퍽대 방문교수이자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인 G. 키스 스틸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스틸 교수는 “이른바 ‘집단 쏠림’(stampede)은 사람들이 달릴 공간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이태원은 그런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좁고 막힌 공간일 경우 군중 전체가 한 무더기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미노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고는 통상 인파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밀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갈린 채) 죽어가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목격자들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 위치한 4m 너비의 비좁은 경사로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인파의 압력에 밀리면서 한 번에 쓰러졌

다고 증언했다.

WP는 ‘서울 살상 사고는 어떻게, 어디서 일어났나’라는 제목의 별도의 기사에서는 이번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현장 영상을 보면 좁은 거리와 골목길이 몰려드는 인파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태원의 비좁고 협소한 거리와 골목으로 인해 어둠이 깔리고 특히 사람이 붐비면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당시 좁은 거리로 군중이 밀려들면서 압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수십 년간 정치적 시위 및 중중 폭력적 결과를 부른 경찰 병력 진압을 수반한 대규모 집회를 겪어오면서 군중 통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라며 “이번 토요일 밤의 이태원 상황은 최근의 정치적 시위 현장에서 민간인보다 경찰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의 존 제이 범죄학 컬리지 강사인 브라이언 히킨스는 NYT에 경찰과 공공안전 당국자들이 쏟아져나온 규모의 군중에 대한 대응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고 “충분한 인력과 계획이 없었던 것은 꽤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규모보다 더 많은 인파가 그 공간에 들어갔다. 그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사람이 일단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들을 빨리 해산시킬 계획 또한 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실종센터서 아들 사망소식 들은 어머니 실신

이태원 참사 현장

헬러윈 참가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인근은 30일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였다. 호텔 인근에는 경찰과 주민들의 왕래가 이어졌지만, 출입 통제선이 쳐진 참사 현장 양쪽에는 쓰레기만이 널려 있었다.

추모와 실종자 찾는 발길 이어져

○...하루 전인 29일 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골목은 통제선이 쳐 있었다. 이태원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차량은 통제돼 들어갈 수 없었고, 사고 현장 골목길을 비롯해 이태원의 뒷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통제선 앞까지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해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 백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며 내뿜는 한숨과 탄식이 참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듯 했다.

경찰의 통제에 막힌 시민들은 골목 입구를 지키고 서있는 경찰관 옆에 꽃을 놓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한 시민은 들고온 꽃을 건물에 부착한 뒤 “좋은 세상에 가서 못다한 꿈 이루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들을 찾기 위해 행렬도 이어졌다. 친구를 찾기 위해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찾지 못하자 결국 울음을 터트리며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주변상인들도 애도의 목소리

○...“안타까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휴업을 합니다”

이태원 인근 상인(커피숍, 음식점)들은 안타까운 참사로 숨진 사람들을 애도하며 휴업을 하기도 했다.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의 목소리를 내면서 후시나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처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호진(여·58)씨는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어렵게 입을 폈다.

김씨는 “원래 밤 10시가 영입마감인데 헬러윈 대목이라 어제는 새벽까지 영업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새벽 3시께 문을 닫았다”면서 “인파가 많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정도 인파가 모였는데 그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관계기관에서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보현(여·34)씨는 “어제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구급차 소리에 놀랐다”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꼭 마네킹 같아 아직도 무섭다. 생업을 이어가는 공간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의 뜻을 담은 꽃을 남겼다. /서울=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실종신고센터 발길 줄이어

○...“안녕하세요 한남동 주민센터입니다.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성빈센트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확인자 연락드렸습니다”

가족,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이태원 헬러윈 참사 실종센터에는 30분 간격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들을 찾기 위해 오후 1시 30분께 이곳에 온 한 중년여성은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쓰러져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외국인들도 친구와 가족을 찾기 위해 실종센터를 찾아왔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외국인 여성은 아들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22세 아들이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고 말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사망자 명단, 부상자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딸을 찾으러 왔다는 부모는 실종센터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자 “대통령이 아침에 방송나와 말만 하고 뭐하는 거냐”며 책상을 치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전홍희·민현기 기자 hyunki@